

# 소변을 보고 병을 알아보기

‘동의보감’에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데는 세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다.

즉 설사후 진액이 적어진 때, 열이 하초에 몰릴 때, 비위장 기능이 나쁠때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.

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안 나오는 것을 ‘용폐증’이라 하는데, 복부가 팽창되고 몸이 부으며 토하거나 숨이 차고 방광이 터질 듯 괴롭고 위태로운 증상을 보인다.

그리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사구체 신염, 요로폐색일때 또는 소변을 참고 달리거나 성행위를 했을 때 소변이 막히는데 이를 ‘전포증’이라 한다.

소변이 잦고 참지 못하는 것은 비장이나 폐장 혹은 간장이나 신장의 기허에 의해 오며, 방광 염증·종양·결석 때나 당뇨·전립선 질환·심부전 때도 소변이 잦을 수 있다. 또 피로·흥분·오랜 병이나 주색에 의해 상하면 진액이 소모되어 소변이 붉어지고 자주 보게 된다.

사이다·토마토·시금치·육류 등 음식물 혹은 약물에 의해서도 소변이 탁해질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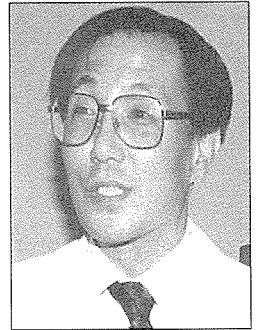
때로는 정액이 섞이거나 비뇨기 염증이 있거나 땀이 많이 흘렸을때도 탁해진다. 소변이 기름이나 쌀뜨물 같거나 피고름 같은 게 엉기면 습열이 원인인데, 대개 희고 탁하면 냉증이요, 붉고 탁하면 열증으로 구분한다. 특히 소변이 콜라빛이면 담석이나 간경변을 의심해 볼 수 있다.

한편 피오줌이 나오면서도 아프지 않은게 특징인 혈뇨증은 선홍색과 암적색으로 구분된다.

이는 열이 하초에 있기 때문이며 심장의 열이 소장에 전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나친 성생활도 원인이 될 수 있다.

피오줌이 나오며 음경 속이 아프고 열이 있으면 ‘혈림증’이라 한다.

그런데 소변 처음에 피가 나면 요도염을, 끝에 피가 나면 후부요도염이나 전립선 종양 등을, 처음부터 끝까지 피가 나면 결석·신염·종양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.



신재용  
해성한의원 원장

COLUMN